



서중신문

2019-13호

- 발 행 인 : 교장 김두용
- 지도교사 : 정 혁
- 발 행 처 : 변산서중학교
- 발 행 일 : 2019. 7. 10

우)56342 전북 부안군 변산면 지서로 139 / 교장실 063) 583-6679 / 교무실 063) 582-8122 / 행정실 063) 582-8039

변산서중학교의 새로운 바람~ 혁신!!은 나로부터

우리 학교 김두용 교장 선생님은 올해부터 학생들과 같은 교복을 입고, 매일 아침 등교 시간에 학생들을 맞이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두용 교장 선생님은, “처음에는 이상하게 혹은 주책이라고 생각할까 하는 등의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이에 따른 걱정이 많았지만, 학생들이 매우 즐거워하고 친근하게 생각하며, 지속적으로 입어주기를 바라는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선입관 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학생들이 나의 모습을 통해 갖는 작은 미소 하나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나 스스로 30년 이상 입었던 기존의 정장에서 벗어나 교복을 함께 입는 것, 이것부터가 생활 속의 혁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하며, 앞으로도 꾸준히 교복을 입고 학생들의 시선에서 바라보고 눈높이를 맞춰가야 하겠다고 다짐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우리 학교에서는 이런 교장 선생님의 모습에 자극 받아 학생들이 학생회를 중심으로 자체적으로 ‘교복 바르게 입기 운동’을 하여 모든 학생들이 3월부터 꾸준히 교복을 바르게 입고 있으며,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을 ‘자유복 데이’로 지정하여 학생들이 사복이나 교복을 자유롭게 입고 등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12회 동창회 모교사랑 장학금 및 후원금 전달

- 모교와 후배들을 위한 선배님들의 사랑

우리 학교 제12회 동창회의 졸업 35주년 기념식이 4월 20일 (토) 드림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제12회 졸업생들뿐만 아니라, 전·현직 교사들까지 모셔서 이웃사랑 기금 전달식 및 동창회 장학금 전달식 등을 진행하여 더욱 뜻깊은 행사가 되었습니다.

제12회 동창회(회장 김시선)에서는 약 천 만원에 달하는 기금을 조성하여 우리 학교 학생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이 될 수 있도록 복도 및 계단의 데코타일을 시공하였으며, 우수한 후배들을 위한 장학금도 준비하여 전달 하는 등 모교와 후배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며, 후배들과 지역 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고 김두용 교장 선생님은 밝혔습니다.

학생회장 김경민(3학년) 학생은, “우리에게는 정말 까마득한 선배님들이 우리 학교를 잊지 않고, 이렇게 많은 사랑을 베풀어주셔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고, 우리도 나중에 후배들을 위해 이런 존경받는 선배가 되고 싶다.”라고 하며, 선배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제12회 동창회는 수년 간 지속적으로 지역의 독거노인들과 불우한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지역 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Contents

2 + 학교생활은요

-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 교육과정 설명회 및 수업 공개
- 4월 과학의 달 행사
- '우리들의 꿈과 끼를 찾아가는 여행' 영상 제작
- 스포츠클럽 리그 대회
- 춘계체육대회

3 + 재미와 감동이 있는 체험 속으로

- 테마식 현장체험학습
- 학생야영수련활동
- 내 고장 체험활동

4 + 배움 나눔 성장으로 하나 되는 우리

- 프로젝트 학습
- 학부모 독서·문화 체험학습 '책가방'
- 어울림학교 지구살리기

5 + 따뜻함이 묻어나며, 학생자치가 꽃 피는 학교

- '다모임'
- 학생회활동
- 혁신학교 학부모교육
- 따뜻한 아침 등교맞이

6 + 동아리 활동

- 가온누리 활동
- 과학동아리
- 방송부 활동
- 농구동아리 TOP TEN

7 + 또 다른 얘기들

- 다꿈키움학교
- 학부모 제과·제빵 교육
- 현대자동차 중점학교

8 + 함께 나누는 기쁨 및 알려 드릴 말

- 축하합니다.^^
- 혁신학교 수업 나눔
- 학부모 독서 프로그램 '書對公감'
-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반가워요 여러분^^

올해도 우리 학교 2019 학년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2월 21일(목)부터 1박 2일 간 부안 청소년 수련원에서 신입생 20명이 참여한 가운데 김두용 교장 선생님과 이하 전교사들이 인솔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에서는 다양한 레크리에이션과 중학 생활 교육 등을 실시하여 학생들이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였고, 학교와 선생님들에 대한 안내 및 소개가 있었습니다.

김하은(1학년) 학생은 “새로운 환경이라 걱정이 많았지만 이번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선생님들과 새로운 친구들을 알게 됐다. 새로운 학교 생활이 기대되고, 변산서중학교의 예쁜 교복을 꼭 입어보고 싶다.”라고 하며 새로운 시작에 대한 핑크빛 기대를 드러냈습니다.



교육과정 설명회 및 수업 공개

2019학년도 내일을 향해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함께 뛰는 우리 학교

2019년 3월 20일 우리 학교 도서관에서 2019 학년도 교육과정 설명회와 각 반 교실에서는 수업공개가 있었으며, 약 21명의 학부모님들께서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먼저 이루어진 수업공개는 다섯 개 반 모두 두 시간씩 이루어졌으며, 참관한 여러 학부모들은 우리 학생들과 교사들의 변화·발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 좋았노라고 입을 모아 말하였습니다.

이후 이루어진 설명회에서는 우리 학교의 전년도 실적과 올해 우리 학교가 혁신학교로서 추구하는 교육철학과 그 과정에 대한 설명 및 전교사들에 대한 소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회(회장 형준옥) 임원들을 각각 선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육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김두용 교장 선생님



자녀들의 교실을 돌아보고 있는 학부모들



정성룡 선생님과 함께하는 역사 수업



4월 과학의 달 행사

‘국민과 함께 미래를 보다’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고 자기주도적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며 과학적 탐구심과 창의적 사고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매년 변산서중학교에서는 융합과학대회, 우주항공대회, 과학시화대회, 과학독후감 등 여러 가지 과학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특히 융합과학대회, 우주항공대회는 과학, 기술, 공학, 예술, 수학 영역을 상호 연계시키고, 융합하는 과정을 통해 상호협력에 의한 창의적인 문제 해결력을 기르기 위해 치러지는데 이번 융합과학대회에서는 학생들의 태풍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랜드마크 구조물을 직접 만들어 보며, 우리 고장을 대표할 수 있는 구조물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우리들의 꿈과 끼를 찾아가는 여행’ 영상 제작 방과후 프로그램 관련 영상 제작

6월 13일(목) 전라북도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우리 학교 특기적성 방과후 프로그램 관련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 방문하였습니다. 3월부터 시작된 10개의 방과후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들의 꿈과 끼를 찾아 나가는 여행을 성공적으로 촬영하였다고 합니다.

우쿨렐레부에 소속된 1학년 황주찬 학생은 “로이킴의 ‘봄봄봄’이라는 곡을 우쿨렐레로 완주할 수 있다는 것에 큰 성취감을 느끼고, 친구들과 다 같이 연주한 것이 영상으로 오래 남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설렌다.”고 전했습니다.



스포츠클럽 리그 대회

플로어볼로 하나되는 우리

지난 4월 17일부터 7월 10일까지 혁신학교 스포츠클럽 신종 스포츠인 플로어볼 대회를 진행하였습니다. 6개조 남녀 11명과 10명의 선생님이 참여하여 열띤 경쟁을 펼쳤습니다.

이번 리그전은 2조 선수들이 우승하였으며, 최다 득점상은 심재민(3학년), 최다 세이브상은 김태규(1학년), 리그전 최우수상은 최아영(2학년) 학생 등이 수상하였습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2조 수비수 최아영 학생은 “선배와 함께 플로어볼이란 스포츠를 접해 운동을 할 수 있어서 무척 재미있었으며, 내년에도 리그전을 한다면 공격수로 나서서 득점왕까지 해보고 싶다.”라고 당찬 포부를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춘계체육대회



지난 5월 24일(금) 우리 학교 춘계 체육대회를 진행하였습니다. 파워풀한 플로어볼 경기, 넘어질 듯하면서도 오뎅이처럼 넘어지지 않는 씨름. 그리고 축구, 단체줄넘기, 배드민턴, 줄다리기, 800m 계주 등의 종목을 선정하여 흡수반과 짝수반이 청백팀으로 나뉘어 열띤 경쟁을 하였습니다.

특히, 많은 학부모님들과 전교사들이 참석하시어 지네발경기, 풍선 터트리기, 800m 계주를 나이를 잊은 듯 열심히 참여하여 학생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체육대회에 참여한 형진옥(2학년 황태영) 학부모님께서는 ‘학생들의 감춰진 운동 실력을 힘껏 뽐낼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 된 것 같아 무척 흐뭇하며, 내년에는 학부모 경기에 꼭 참가하여 학교 및 학생들과 많은 교감을 얻도록 하겠다.’ 라고 말씀 하였습니다.

또한, 학생회 체육부장인 심재민(3학년) 학생은 “이번에 새로 생긴 플로어볼에서 학생들의 호응이 매우 컸던 것 같아 좋았으며, 내년에는 후배들이 좋아하는 다양한 레크리에이션 종목 및 신종스포츠들로 구성된 체육대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테마식 현장체험학습

조선의 아름다움을 엿보다~



경복궁에서 해설하는 가온누리 박주현 (2학년) 학생과 경청하는 1학년 학생들



용인와우정사에서 2학년 학생들과 두 담임교사들

‘조선의 아름다움을 엿보다’라는 주제로 테마식 현장체험학습이 5월 1일부터 3일까지 2박 3일 간 서울과 경기도 용인, 충남 공주 일원 등에서 실시되었습니다.

이번 테마식 현장체험학습은 전교생이 모두 참여하고 김두용 교장 선생님과 이하 7명의 교사들이 인솔한 가운데 1일차 국립중앙박물관과 경복궁 관람을 시작으로 2일차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 3일차 용인와우정사, 공주 공산성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학생들에게 우리 문화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일깨우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획되었습니다.

학생회장 김정민(3학년) 학생은, “우리들이 선택한 주제와 경로로 진행되었고, 매 경로마다 우리 학교 가온누리 동아리 학생들이 해설과 안내를 맡아 학생들이 스스로가 이끌어 갔다는 데 가장 큰 의미를 둘 수 있다.”라고 하며, 학생자치가 꽃 피는 우리 학교의 모습을 느낄 수 있다는 점에 자부심을 가졌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황주찬(1학년) 학생은 무엇보다도 숙소가 좋아 쾌적하게 보낼 수 있었고, 식사부터 잠자리까지 모든 게 만족스러웠던 여행이었다고 큰 만족감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전교생들과 교장 선생님

학생야영수련활동



우리들은 아름다운 변산인!!



입소식에서 학생회장의 선서

올해의 학생야영수련활동은 6월 4일(화)과 5일(수) 1박 2일 간 모악산 유스호스텔에서 있었습니다.

전교생이 모두 참여하고, 교감 선생님을 제외한 전교사들이 모두 인솔하여 진행한 이번 수련활동은 어울림학교 문화예술체육 <아름다운 변산인> 사업과 연계하여 버스비를 지원하는 등 학생들의 부담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학생들은 안전교육으로 시작하여 물썰매, 활쏘기 등의 다양한 체험활동으로 하루를 수놓았고, 캠프파이어 등의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통해 자신의 개성을 뽐내며 일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학생야영수련활동이번 활동을 통해 우리 학생들은 ‘함께’라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자신의 의사를 효과적으로 표현하여 상호 존중하는 관계 형성의 중요성을 이해하였으며, 건강한 신체 단련을 통한 바른 정신을 수련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활쏘기 중인 학생들



물썰매를 타는 학생들

부안생태체험 내 고장 체험활동

직소폭포 숨은 이야기 찾기

지난 4월 20일(토) 1학년 24명의 학생들과 ‘직소폭포 숨은 이야기 찾기’ 체험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우리 고장 변산의 생태환경과 내변산에 숨어 있는 다양한 이야기에 대한 체험중심의 활동을 통하여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즐거움을 갖게 하고 미래를 주도해 나갈 창의성을 기르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변산반도국립공원 환경해설사님을 초청하여 직소폭포에 숨은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으며 우리 고장에 대한 애향심을 가질 수 있었으며, 특히 이번 행사에 참여한 1학년 학생들과 교사들은 체험활동을 함께 진행하며 사제 간에 정을 나누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함께 참여한 안재현 선생님은 “앞으로 우리 고장을 알릴 수 있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많은 학생과 교사가 참여할 수 있다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상감청자 & 별별 이야기’

6월 20일(목) 1학년 12명의 학생들과 함께 세계적인 도자기 고려상감청자의 고장 부안군 보안면 유천리에 있는 부안청자박물관으로 ‘상감청자 & 별별 이야기’ 체험활동을 다녀왔습니다.

천년 부안청자의 발자취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건물 외벽의 빗갈은 은은한 청자의 빛을 닮았고, 건물 내부는 가마에서 도자기가 구워지면서 변하는 온도를 빗갈로 표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학생들은 흙을 기다랗게 늘려 바닥면에 한 층 한 층 돌려 쌓으며 안팎으로 꼼꼼히 붙여 주면 그릇 모양이 얼추 나오고 물레를 돌려가며 손으로 원하는 모양으로 잡아주면 빙빙 돌아가면서 자신이 원하는 도자기 모양이 완성되는 과정을 보며 우리 조상들의 위대함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어울림학교(초·중등학교 연계형) 사업

■ 프로젝트 학습

역사 · 문화 수업

어울림 학교 사업의 일환으로 6월 13일 변산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과 우리 학교 3학년 학생들이 역사 어울림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3학년 재학생들이 직접 경복궁에 대한 설명과 함께 즉석 퀴즈를 진행하였으며, 초등학생들과 한결 더 가까워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변산초등학교 박두빈(6학년) 학생은 언니, 오빠들과 함께 퀴즈도 하고, 고건축 모형도 만들다 보니 더 친해진 것 같아 중학교 생활이 기대된다고 하였습니다.



■ 학부모 독서 · 문화 체험학습 '책가방'

김승옥 문학 <내가 훔친 여름> 속의 여수



김승옥 문학관 앞에서



문학관 내에서 김승옥의 문학 속으로



여수 향일암에서



배 위에서 한 컷

꿈이 익어가는 '우리는 하나' 융합과학 프로젝트

4월 17(수)에 꿈이 익어가는 '우리는 하나' 융합과학 프로젝트를 실시하였습니다.

올해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는 우리 초등학생들에게 자율주행자동차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뜻을 모아 방과후 시간을 활용하여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해 조사하고 직접 만들어보면서 철저하게 프로젝트를 준비하여 초등학교 후배들과 뜻 있는 프로젝트를 실시하였습니다. 미디어를 통해서만 접했던 자율주행자동차 모형을 직접 만들어보고 운행하면서 우리 학생들은 다가오는 미래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감을 가지고 미래의 발전가능성을 생각하며 미래를 바꾸어 갈 과학자 및 공학자의 자질을 기르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올해 독서 · 문화체험학습 '책가방'이 6월 11일(화) 순천문화관(김승옥 문학관), 여수 향일암, 여수 해양공원 등에서 실시되었습니다.

김승옥의 '내가 훔친 여름'이라는 테마로 이루어진 이번 체험학습은 어울림학교 사업의 일환으로 학부모들과 교사들이 독서를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총 2회 계획되었으며, 이번 1회에는 우리 학교, 변산초등학교, 격포초등학교 등 3개 학교 학부모들 23명이 참여한 가운데 인성 · 인권부장 정혁 선생님과 김두용 교장 선생님의 인솔로 진행되었습니다.

체험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임미화 학부모(2학년 신경진)는 "김승옥 문학관을 방문하여 김승옥 님과 만나볼 수 있길 기대했지만 그러지 못해 아쉬웠다. 하지만 여수 밤바다를 볼 수 있어 정말 행복한 시간들이었다."라고 하였고, 형진옥 학부모(2학년 황태영)는 "2학기에도 좋은 장소를 선택하여 많은 학부모님들이 참여하였으면 좋겠다."라고 큰 만족감과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 지구살리기

'국립장성숲체원' 체험활동

지난 5월 18일(토요일), 부슬 부슬 비가 내리는 가운데 변산초, 격포초, 변산서중 학생 및 학부모님들과 국립장성숲체원 체험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국립장성숲체원 선생님들의 안전교육을 시작으로 '너와 내가 함께 만드는 KAPLA' 만들기를 하였는데 서로 힘을 모아 하나씩 나무토막을 쌓다보니 어느새 커다란 집모양의 탑이 완성되었습니다.

최아영(2학년) 학생은 "작은 나무토막을 사용하여 커다란 탑을 언제 쌓을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었지만, 친구들, 부모님들, 어린 동생들과 함께 도와가며 활동을 하다 보니 어느새 커다란 집모양의 탑이 완성되는 모습을 보며 너무 뿌듯하고 행복했다."라고 하였고, 오후 프로그램으로 숲오감체험활동에서는 편백나무 숲속을 거닐며 피톤치드 향내와 함께 자연이 주는 선물을 마음 가득히 한아름 받았습니 다.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솔방울, 열매, 나무껍질, 나뭇가지 등을 활용하여 '추억을 간직할 나무 액자 만들기'를 하였습니다.

이번 체험활동을 통해 자연이 그러하듯이 우리도 자연처럼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행사를 진행한 김덕중(과학과) 선생님은 자평하였습니다.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변산서중 과학축제'

지난 6월 22일, 주말을 이용하여 실시된 어울림학교 지구살리기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변산서중 과학축제'는 변산초, 격포초, 변산서중 학생과 지역주민들이 '거울아~거울아~ 은거울반응', '너랑 나랑~ 브레드보드 러브미터', '달콤한 팝콘 만들기', '날아라 드론~ 내 꿈을 펼쳐라', '과산화수소 촉매분해 & 물 진기분해' 등의 5개 과학체험 부스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더불어 '플로리스트와 함께 하는 한 송이 꽃 포장하기', '향기 솔솔~ 나만의 석고방향제 만들기' 등 다양한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변산서중 과학축제는 변산면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 및 학부모들이 함께 참여하여 서로 웃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지역 주민 간에 화합하여 신나게 어울릴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변산초 학부모들은 "지역사회에서 과학, 문화, 가족 관련 체험행사가 부족하여 아쉬웠는데,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변산서중 과학축제를 마련하여 평소 할 수 없는 다양한 과학 체험을 하였고, 아이들과 함께 하며 꿈과 희망, 배움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 행복한 시간이었다."라고 하였습니다.



‘다모임’ - 쌤과 우리의 행복 TALK

올해의 <다모임>이 3월 5일 오후 5 교시에 도서실에서 우리 학교 김두용 교장 선생님과 전교생들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혁신학교 사업의 일환으로 ‘쌤과 우리의 행복 TALK’라는 주제로 작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다모임 프로그램은 교사와 학생들 간의 진솔한 대화를 통해 서로의 벽을 허무는 계기로 삼기 위해 기획되었는데 광경혜(1학년) 학생은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모든 게 아직은 낯선데 교장 선생님이 직접 우리들의 얘기를 적극적으로 들어주셔서 앞으로 학교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며,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학교 ‘다모임’은 지속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학부모교육’ - 나만의 행복 바구니 만들기 -

6월 20일 우리 학교 미술실에서는 꽃향기로 가득했습니다. 올해 혁신학교 학부모 교육으로 YFYL 대표 이은세 강사로부터 ‘나만의 행복 바구니 만들기’라는 주제로 누구나 손쉽게 꽃을 즐기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한 송이의 꽃이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학부모님의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참여하신 임미화 학부모는 “같은 꽃, 같은 바구니에 꽃았는데 15명 모두 다른 작품이 나온 게 신기하다. 꽃꽂이를 처음 해봤는데 너무 기분이 좋다.”라고 하며 그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학생자치 꽃을 피우다’

‘따뜻함이 묻어나며 학생자치가 꽃피는 학교’ 혁신학교 3년차가 되면서 당선증을 받고 실시한 학생회 활동은 전체적으로 다양해졌습니다.

봉사부, 환경부는 ‘학교를 아끼는 날’을 제목으로 하는 깨끗한 학교 만들기 활동을 매달 진행하였으며, 문예부는 ‘한 줄 코멘트’라는 프로그램으로 매달 1회씩 우리 학교 학우들에게 직접 다가가며 열린 학생회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올해 학생회에서 공약으로 내세운 ‘자유복 데이’가 성공적으로 안착하여 학생들의 교복에 대한 의식이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그밖에도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세월호 참사 5주기 추모행사 및 따뜻한 등교맞이 캠페인, 스스로 종목을 짜고 진행한 체육대회와 리더십 캠프 계획,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고마운 사람에게 편지쓰기 등을 통해 우리 학생회는 스스로 모든 사항을 결정하고 실천하는 능력을 배양하였습니다.



아침 등교맞이



당선증을 받는 학생회 임원들



세월호 참사 5주기 편지쓰기



스승의 날 사제 간 플로어 경기

혁신학교와 Wee클래스가 함께하는 따뜻한 아침 등교맞이

세월호를 추모하며 R.I.P.
그리고 우리들의 새로운 시작!

4.16.(화) 학부모님들과 함께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을 돕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등교맞이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캠페인에 참여한 학생은 “아침에 등교맞이를 반갑게 해 주시니 아침부터 기분이 좋고 많이 웃어서 행복해요. 그리고 아침에 시간이 없어서 굶고 왔는데 맛있는 샌드위치를 먹어서 너무 든든해서 공부도 더 잘된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행사를 함께한 안재현 선생님은 등교맞이 캠페인을 활성화해 행복한 학교문화를 형성하고 대화와 소통의 학교생활 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원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학교에서는 학생중심, 현장중심, 학교밀착형 교육서비스와 안전한 학습 환경 속에서 소통과 공감으로 행복한 교육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등교맞이 및 아침밥 먹기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선생님 YO! 학생들 YEH~
우리 함께 HI~FIVE 짹짹쓰~



6.13.(목)의 등교맞이 캠페인은 하이파이브를 통해 따뜻한 손의 온기를 전달하고 학생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어 학생들이 자신을 소중한 존재로 인식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실시했습니다.

전 교직원이 함께 참여한 이번 캠페인을 통해 교직원과 학생들 사이의 친밀감을 높이고, 폭력 없는 학교, 학생과 교사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을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직 한 발 남았다...
우리 2학기에 또 만나요~~

아침 등교맞이 프로젝트는 아침 일찍 학교에 등교하는 전교생의 얼굴 표정을 보고 착안하여 학생의 의식이 성장하고 행복감을 갖는다면 학교가 행복해 질 것이라는 생각으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아침 여덟 시에서 여덟 시 삼십 분 사이에 등교하는 학생과 교직원을 위하여 ‘행운의 하이파이브’, ‘든든한 아침식사 함께하기(샌드위치, 핫도그 등)’ 등을 실시했습니다.

매일 아침 등교맞이를 해주시는 김두용 교장 선생님과 정형 학생부장 선생님은 “아침 등교맞이의 얼어붙은 표정들을 보고 이벤트를 열어주고 싶은 생각이 떠올랐다.”며 이번 등교맞이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찾아서 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교육 방향인 것을 다시 한 번 느꼈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가온누리 동아리 활동



우리학교 자율동아리 가온누리에서는 올해 활동을 테마식 현장체험학습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역사적인 명소와 그 유래 등을 동아리 학생들이 직접 알려주는 프로젝트 릴레이 설명을 시작으로 수성당 청소 및 내 고장 정화 활동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5월 25일 부안군청 암각화, 부안향교, 석정문학관, 부안 남문 안, 부안 서문 안, 당간지주, 매창공원 등 내 고장 문화답사를 통해 우리 고장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온누리 동아리 회장 임태은(3학년) 학생은 “내 고장 문화 답사를 통해 알지 못했던 우리 고장의 우수함과 전통의 아름다움을 느꼈다.”라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동아리 담당교사 정성룡 선생님은 앞으로도 우리 역사 및 지역 역사를 널리 알릴 수 있는 동아리 활동이 지속되었으면 한다고 하였습니다.



환경을 지키기 위해 고군부투하는 과학동아리

과학발전소 ‘주니어레인저’

한 학기 동안 과학동아리 과학발전소 10명의 학생들은 변산반도국립공원과 연계하여 ‘국립공원에 대한 학습(현장체험)과 자원봉사 활동’으로 구성된 주니어레인저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는데 우리 학생들의 환경보전의식을 성장시키고, 미래의 환경리더로 양성하고자 노력하였다고 합니다.

방과후와 주말 시간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주니어레인저는 국립공원의 이해와 북아트 제작하기를 시작으로 부안종개 이야기, 자연에도 좋고 나에게도 좋은 건강트레킹, 부안종개 드림캐처 만들기 등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였는데 특히, 학생들은 우리 고장의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내변산 직소폭포를 등반하며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하였는데 함께 참여한 변산반도국립공원 이정노 선생님은 “최근 청소년들은 입시위주의 교육, 각종 미디어 과잉노출 등에 의해 우리 고장의 역사, 환경에 대해 큰 관심을 갖지 않고 자연과 멀어지고 자연과 가까이 할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 작년에 이어 주니어레인저 2기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생물, 자연 경관, 문화자원을 간직한 변산반도국립공원에 대해 더 많은 배움을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3기, 4기도 꾸준히 이어질 수 있다면 좋겠다.”라고 말하며 주니어레인저들에게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했습니다.



방송부

꿈꾸는 라디오

우리 학교 자율동아리 방송반에서 “꿈꾸는 라디오”를 5월 31일 개최하였습니다.

방송반 주도로 진행된 이 행사는 영어과 김효현 선생님을 초대석으로 모셔서, 여러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한 질의응답과 함께 김효현 선생님의 노래랑 춤도 볼 수 있었던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행사의 백미 경품 추첨과 노래 맞추기에서는 학생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초대석에 섰던 김효현 선생님은 앞으로도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는 “꿈꾸는 라디오”가 계속 개최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농구공 하나로 코트를 지배하는 농구동아리 TOP TEN !!!



지난 6월 8일(토) 법사랑에서 주관하는 부안군청소년 길거리농구대회에 참가하여 비록 우수한 성적을 거두지는 못하였지만 자신의 농구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시간을 가졌고, 다음 대회에는 더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한 도전정신을 배울 수 있었다고 합니다.

4년째 이어지고 내려오고 있는 우리 학교 농구 동아리 <TOP TEN>은 10명의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점심시간, 방과후에 운동하면서 농구공 하나로 선후배간의 화합을 다지고 서로 이끌어 주는 있습니다.

김덕중 선생님은 농구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 함께 운동하며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며 즐겁게 운동하는 모습이 최고이다. 졸업생과 재학생이 함께 하는 ‘선후배간의 농구대잔치’를 통해 선후배간 우정을 다지며 훈훈한 모습을 보일 때면 저절로 입가에 미소가 드리워진다고 하였습니다.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 농구를 통해 서로 하나가 되며 최고가 되기보다는 최선을 다하는 우리 학생들의 진면목을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농구실력과 학교공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는 <TOP TEN>의 선전을 기대합니다.



다꿈키움학교

● 지역 이주여성과 함께하는 다문화교육

5월 13일 7교시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는 지역 이주여성과 함께하는 다문화교육이 있었습니다. 부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소속 강사님들의 강의로 일본, 중국, 필리핀의 문화를 알아보고 다양한 음식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참여한 김민서(3학년) 학생은 “내가 싫어하는 재료만 들어가서 중국 만두를 먹고 싶지 않았지만, 직접 체험하고 모르던 그들의 문화도 알고 나서 먹으니 생각보다는 맛있었다.”라고 하였습니다.



● 참여와 어울림의 다문화 이해교육

5월 16일 7,8교시 전학생을 대상으로 1학기 다문화 이해 교육이 있었습니다. 부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소속인 노부가나 게이코, 마챤란, 두염연 등 지역 이주여성 강사님으로부터 중국과 일본 문화 알기 및 음식체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참여한 1학년 이성진 학생은 “중국에 56개 정도의 소수민족이 있다는 걸 알고 깜짝 놀랐다. 성조의 변화로 인해 의미가 달라지는 중국어 공부가 재미있었다.”라고 하여 교육의 효과를 알 수 있었습니다.



● 포용으로 꽃피는 따뜻한 동행 - 장애이해교육 주간 운영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긍정적인 인성을 기르기 위해 장애이해교육 주간이 4월 15일에서 20일까지 약 일주일 간 운영되었습니다. 아침맞이 행사로 학생회 학생들과 슬로건 캠페인을 진행하였고, 전교생을 대상으로 소중한 친구를 주제로 한 오행시 공모전도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장애이해교육 주간을 통해 김혜림(특수) 선생님은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되 그 차이로 인하여 차별받지 않는 모두가 행복한 변산서중인이 되길 바란다는 희망을 드러냈습니다.

소중한 친구 오행시 공모전 결과

최우수작 - 1학년 1반 송서현	우수 - 3학년 1반 이성찬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해도 한상(향상) 몸이 불편하여 잘 움직이지 못해도 친구가 될 수 있고 구태어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할 수 있어요.	소중한 나의 친구 중력처럼 날 끌어당기는 너 한 명이지만 백 명보다 더 소중한 나의 친구, 바로 너 구지(굳이) 내게 대답하지 않아도 돼. 너 나의 소중한 친구니까



※ 우리 학교는 2016년부터 올해까지 지속적으로 다꿈 키움학교로 지정되었는데 다꿈키움학교는 다문화정책학교로서 이중언어교육과 문화예술체육교육을 중점적으로 운영하는 학교로써 우리 지역에서는 우리 학교가 다문화 거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제과·제빵 교육

우리 학교는 수년 전부터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지역의 학부모들과 다문화 가정의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제과·제빵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어울림학교 사업에서 5회, 다꿈키움학교 사업에서 4회 등 총 9회를 계획하여 5월 7일부터 7월 16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한 시에 실시하고 있으며, 김제에서 이윤화 선생님이 매주 방문하여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단팻빵부터 피자빵까지 다양한 제과·제빵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화 선생님은, “작년부터 변산서중학교를 방문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타 시군의 학부모들 보다 참여율도 높고, 모두가 열정적으로 잘 따라와 줘 교육할 맛이 난다.”라고 하여 교육자로서 큰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번 제과·제빵 교육을 통해 만들어진 빵과 과자 등은 우리 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인근의 초등학교와 독거노인 등의 간식으로 제공되어 우리 학교 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변산면사무소에 인근 독거노인을 위해 간식을 전달

현대차와 함께 꿈을 키우는 미래자동차학교 현장체험학습

6월 25일(화) 2학년 24명의 학생들과 현대차와 함께 꿈을 키우는 미래자동차학교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하였다. 현대자동차 관련 체험 공간 및 직업 현장을 학생들이 방문함으로써 자동차 산업 관련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진로탐색활동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서울 강남에 위치한 현대모터스튜디오에서는 자동차 문화를 체험할 수 있었는데, 단순히 이동 수단이라 사회, 문화적 동반자로서 자동차를 재조명하는 자동차 산업 전반에 걸쳐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잠월드에서는 현대자동차에서 근무하는 멘토와의 만남의 시간을 가졌고 모터스포츠센터, 고성능차 디자인센터, 고성능차 연구개발 센터 직업체험을 하였습니다. 체험학습에 참여한 2학년 황태영 학생은 ‘그 동안 학교생활을 하면서 꿈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없었는데 현대자동차에서 근무하시는 멘토 님과의 만남을 시간을 갖으며 내 꿈이 무엇인지, 진짜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되었다. 매사에 성실하고 적극적인 삶을 살아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제 48 회 매창 학생 백일장 및 사생대회

지난 5월 31일, 부안문화원에서 2019년 매창문화제의 일환으로 개최하는 제48회 매창 학생 백일장 및 사생대회에 우리 학교 학생 일곱 명이 수상하였습니다.

먼저 백일장대회 중등부 운문 부문에서는 2학년 박주현이 '새만금'으로 입선, 중등부 산문에서는 2학년



(3학년 1반 김인화 작)

최유민이 '5월의 나의 엄마'로 차상, 2학년 최아영이 '5월의 스승 예찬'으로 차하를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이 참가하여 좋은 성적을 낸 것은 우리 학교 특색 사업 '독서-토론-논술 능력 배양'의 일환으로 꾸준히 책을 읽으며 독후 활동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생대회에서는 중등부 수채화 부문에서 김인화(3학년)학생이 특선, 중등부 운문 부문에서는 박주현(2학년)학생이, 산문 부문에서는 최유민(2학년), 최아영(2학년)학생이 각각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제 46 회 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배 육상경기대회

지난 4월 25일 부안 스포츠파크에서 실시된 제 46회 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배 육상경기대회에서 우리 학교 선수들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트랙 400m에서 신경민(2학년) 3위, 1,500m 조정연(2학년) 학생이 3위를, 필드경기인 높이뛰기에서 조정연 2위, 신경민 학생이 3위에 입상하였습니다.

100m 종목에서는 1등은 당연하다며 당찬 포부를 밝힌 황태영 학생은 7위로 통과하면서 머쓱한 모습을 보여 함께 참가한 학생들에게 많은 웃음을 주었지만 주 종목인 포환던지기에서는 3위에 입상하면서 모두에게 놀라움을 선사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경기에서는 1학년 정예린 학생이 함께 참가한 2·3학년 언니들을 제치고 100m와 200m에서 우승을 하는 파란을 일으켜 모두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정예린 학생은 "중학교 입학해서 처음 대회에 참가한데 많은 긴장을 하여 어떻게 뛰었는지 생각도 나지 않는다."라며 이번 대회를 통해 자신감을 갖게 되었으며, 내년에도 대회에 참가하여 좋은 성적을 거뒀으면 좋겠다고 포부를 드러냈습니다.



혁신학교 수업 나눔, 수업혁신 학교 맞춤 연수

Where there is a will, there is a way

혁신학교의 학교문화 형성을 위해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수업 나눔과 다양한 연수를 통해 교수학습방법 및 학습자에 대한 정보 공유 등으로 교사로서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에는 모두 다섯 분의 선생님들이, 올해에는

세 분의 선생님들이 수업 나눔을 통해 교수학습방법의 개선에 힘쓰고 있으며, 현직교사 및 교육전문직에 계신 장학사 등을 초빙하여 참학력을 기르는 맞춤형 연수를 3회 진행하였는데 이를 통해 축적된 수업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었고, 좋은 수업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과 탐색의 시간을 갖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연수에 참여한 안재현 선생님은, "올해 처음 우리 학교에 와서 선생님들이 모두 적극적으로 수업을 나누고, 다양한 연수를 통해 전문성 및 역량 강화에 힘쓰는 점을 보고 많이 놀랐다.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발전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로 하여금 더욱 발전할 수 있게 하는 동기 부여가 되고 있다."라고 하며, 최선을 다하는 선생님들의 모습에 놀라움을 보였다고 합니다.



학부모 독서 프로그램 '書對公감'

희망을 연주하는 핑거기타리스트 김지희 초청 공연 및 특강



공연이 끝나고 모두 모여 사랑의 하트♥

어울림학교 사업의 일환으로 재작년부터 실시되었던 '書對公감'이 올해에는 5월 30일부터 11월 28일까지 총 5회에 걸쳐 매달 목요일 오후 두 시에 현대화된 우리 학교 도서관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1회〈書對公감〉은 5월 30일 우리 학교 소강당에서 정찬호 교육장님을 포함한 약 50여 명의 내외빈들과 전교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장애를 딛고 일어서서 희망을 연주하는, 핑거기타리스트 김지희 씨와 그녀의 어머니 이순도 여사를 초청하여 장애(지적장애 2급)를 딛고 일어서는 감동적인 이야기와 기타 연주를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

● 물놀이 10대 안전수칙

- 수영을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준비운동 및 구명조끼 착용
- 물에 들어갈 때는 심장에서 먼 부분부터 (다리 → 팔 → 얼굴 → 가슴)
- 소름이 돋고 피부가 당겨질 때는 몸을 따뜻하게 휴식
- 물이 갑자기 깊어지는 곳은 특히 위험!!
-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때, 배가 고플 때, 식사 후에는 수영 NO!
- 수영능력 과신은 금물, 무모한 행동 NO!
- 장시간 수영 NO! 호수나 강에서 혼자 수영 NO!
-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주위에 소리쳐 알리고 즉시 119에 신고
- 구조 경험 없는 사람은 무모한 구조 NO! 함부로 물에 뛰어들면 NO!
- 가급적 튜브, 장대 등 주위 물건을 이용한 안전구조